

가장 이상적인 불교학과의 표준은 무엇인가? '예비승려사관학교인가 불교교리 학습을 위한 학과인가?'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창설 100주년 기념 세미나'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동문회는 동국대학교 건학 100주년을 맞아 '불교학과 창설 100주년 기념 세미나'를 4월 7일 본교 문화관에서 개최한다. 이날 열리는 세미나는 '동국대

재조명해보고 창조적인 비전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세미나에서 발표될 논문을 요약 소개 한다.

학교 불교학과 100년과 한국불교'라는 주제로 불교학과 동문 선후배와 재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여 불교학과의 과거와 현재를

박영준 교수의 과학 기술과 불교 <46>

남해 보리암

지난주에 남해 보리암을 다녀왔다. 남해 금산의 남쪽 정상 부근에 위치한 보리암은 서기 680년경, 원효대사가 초당을 짓고 수도를 했다는 곳이다.

남쪽 바다를 향해 서 계신 관세음보살상이 아름답기 그지 없다. 관세음보살상을 뒤로 해서 금산의 바위가 절경을 이룬다.

마침 일요일 법회가 진행 중이었다. 스님은 기도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기도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념'이라고 강조했다. 기도를 하면서, 마음은 천 리 만 길을 가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것.

아마 기도를 하면서 자식 걱정, 집 걱정, 심지어 미운 사람을 저주하는 마음 등 제어할 수 없는 수많은 마음들

하는 주체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완전하게 이해하는 방법이다. 마치 파도가 들어올 때의 소리와 나갈 때 소리, 그리고 그 사이에 존재하는 침묵을 하나하나 주시하면서, 그 주시하는 '자'를 관찰하는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도 우리가 매달리는 예고(혹은 아상)의 실체가 없음을 증명한 관세음보살의 수행을 이해할 수 있다.

청각 신경에서 만들어지는 전기신호로부터 뇌가 인식하고 이를 정보로 저장하는 시스템은 참으로 복잡하고 신기하다. 그러나 이러한 신경구조의 모습 또한 생존을 위한 외부세계를 인식하는 하나의 방법일 뿐이다. 박쥐는 우리가 들을 수 없는 짧은 파장을 가진 소리를 듣는다. 박쥐는 인간과 다르게

아름다운 봄, 산사에서 관세음보살상 보며 존재의 본질 깨친 위대한 자비심 느껴보자

표현한 말이라. 이러한 마음을 가다듬고 일념으로 할 때, 관세음보살의 가피력을 입을 수 있다고 했다. 짧은 법회지만, 매우 인상에 남는 법회였다.

어떤 역사서에서는 관세음보살의 수행기가 등장한다. 바다의 소리를 관하면서, 소리를 듣고 있는 나를 발견하는 수행을 통해서 부처의 길을 완성한 분이라고 한다. 스스로 실험을 해보라. '관세음'이라고 스스로 불러본다. '관'이라고 하면, 그 다음 '세음'을 연상하는 작용을 일으킨다. 이러한 인간의 일

반적인 감각기관의 연상 작용은 아마 경험(혹은 업에서 생기는 일반적인 작용이다. 그러나 관, 세, 음을 하나하나 듣고 있는 나를 계속 주시하는 수행을 함으로써, 관, 세, 음 하나 하나의 음을 분리해서 들을 수 있게 된다. '관'이라는 음을 들으면서, 세, 음을 연상하게

세계를 인식하는 다른 방법으로 다른 모습을 그려낼 것이다. 과학은 우리가 인식하는 방법이 여러 방법 중의 한 가지 방법일 뿐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반아심경에 '관자재보살이 이 세상 모든 사물의 모습이 '공'이라는 것을 알고 괴로움의 바다를 건넜다'라고 한다. 놀랄게도 부처님은 수천 년 전에 존재의 본질이 '공'이라고 하고 이를 체득한 사람만이 '절뚝된 꿈'에서 해방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다.

관세음보살과 같이 '가짜 나'에서 해방된 사람만이 보이는 자비의 모습을 보여준 분이 있을지. 아름다운 봄, 산사에서 만나게 되는 관세음보살상을 보면서, 우리에게 실증적으로 보여 주었던 위대한 자비의 마음을 느끼도록 하자.

서울대 전기공학부



그림: 문병성

타 학문과의 관계속 불교학 미래 찾아야

불교학 응용시스템 구축 시급

불교학과 창설 100년, 걸어진 길과 비전21

강건기 전북대 교수

지금까지 동국대 불교학과에서 배출된 동문은 2,500여명에 이르며 언론, 방송, 출판, 문화예술, 사회봉사 등 사회 각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다.



덕육이, 한국불교의 버팀목이라 할 수 있는 3개 종단의 원장과 동국학원 이사장을 비롯한 주요 지도자 스님이나 본말사의 간부 스님들 중 상당수가 불교학과 출신이라는 점 또한 불교학과의 역사적 가치와 현실적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불교학과는 불교 발전을 위한 포교 인력의 양성도 종교학 연구의 산실로서 갖는 독특한 가치를 충실히 해왔지만 일반 사회를 향한 응용종교학의 개발과 대중화에 미진한 것도 사실이다. 일례로 일부 예술분야나 종교심리학, 상담학, 봉사

관련학, 어린이교육학 등 관련 사회학문 이 해당 종교의 학과목 중 하나로 개설되어 있어 그 연구나 활동의 울타리는 해당 종교의 언저리라는 한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교학과가 현실적 실용학문에 접근해 인성교육과 경제 사회를 위한 응용 학문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응용불교학 시스템 구축 △순수불교학 연구 토대 마련 △보살보교 지향 △다양한 불교문화·사상의 현대적 재해석 등에 기반을 둔 혁신적인 변화와 개선을 도모해야 한다.

특히 생명, 평화, 환경 등을 주제로 한 불교학 응용시스템의 구축이 시급하다. 이런 응용불교학의 시스템이 구축되고 실행될 수 있을 때 비로소 불교사회 전반의 모습에 대한 비판과 그 대안을 모색하는 일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응용불교학과 순수불교학을 두 축으로 삼아 보살보교를 지향해 한다. 이는 그것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살행을 실천하고 가르치는 교수보살, 그것을 배우고 실천하는 학생보살의 모임을 불교학과를 이끌어야 한다.

졸업자에 일자리 마련해 줘야

불교학과의 현재와 미래

이평래 충남대 교수

동국대학교 불교학과는 스님과 재가자 등 사부대중이 어우러져 함께 불교이론을 공부하고 실천을 몸소 쌓아가는 모범적인 전인교육의 실례라는 점 세계 유일의 명문불교대학으로 평가된다.



불교학과는 불교에서 말하는 절대행복인 '깨달음'을 성취하려는 이상을 가진 도반들의 모임이다. 이런 점들로 미루어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기가 높아야 할 학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여기에는 많은 원인이 있을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졸업 후 자립경제 기반 구축의 비현실성일 것이다.

불교학과는 깨달음이란 성스럽고 거룩한 이상을 내걸고 있지만, 그것을 성취하

기까지의 과정을 무시할 수 없다. 때문에 불교학과를 졸업한 사람에게 일자리를 마련하여 주어야 한다.

불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닦은 학문지식과 수행체력을 살려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문제에 있어서 종단과 재단은 공동책임 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인 해결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런 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종현·종법·종규를 개정하여 모든 사찰에 교육부담금을 부과하여 교육기금을 조성해야 한다.

불교대학에 들어온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로부터 삶의 보람을 얻을 수 있는 가치관·인생관·불교관을 심어주는 풍토를 만들자는 것이다. 불교대학은 종합대학의 종학대학임에도 불구하고 재가학생은 졸업하는 것으로 끝이다. 종단의 차원에서 그들을 활용할 마스터 플랜이 세워져 있지 않다는 말이다. 불교학과 졸업자들에게 포교사 고시 등 각종 시험에 가산점을 주는 제도마련도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미래문명 가능성 모색 활발

불교학과 100년사의 재조명

이봉춘 동국대 교수

불교학과의 맹아라고 할 수 있는 명진학교의 설립 정신은 한마디로 '새로운 문화 창조와 시대 개혁을 위한 불교정신의 현재화(顯在化)'로 요약해 말할 수 있다. 한국불교의 정신전통에 비추어 볼 때 명진학교는 단순히 시대에 낙후된 불교교육의 개혁을 위한 신교육기관으



로서의 의미를 지니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민족문화창조의 산실로서, 시대를 개혁해 갈 불교정신의 실험도량으로서 설립된 것이기 때문이다.

불교학 연구에 대한 자각과 개혁의 단계에 이어 1945년부터 1970년대 말까지는 한국불교학의 형성과 정착단계로 상징할 수 있다.

불교학과는 1980년대부터 그 기반이 더

욱 확대·강화되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성장해왔다. 그 요인은 그동안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이 배출해낸 석·박사와 외국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젊은 학자들이 저마다 저술과 논문발표 등 왕성한 연구 활동

을 펼쳐나갔기 때문이다. 1980년대 이후의 주목할 만한 변화 가운데 하나는 변화의 물결 속에서 다학문·다문화화 접근과 개방을 시도하는 세

로운 경향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1990년대 초 무렵부터는 응용불교학과 실천불교학 연구의 전성기를 맞는다. 응용·실천불교학은 아직도 그 이론체제나 연구방법 등이 완전히 정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학문적 실험이 계속되고 있는 과정에 있다.

그러나 그것은 종래의 순수교학·역사·인물 등의 연구와 같은 제한된 테두리에서 벗어나 타 학문과의 적극적인 관련 속에서 불교학의 외연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크다.

현재 불교학과는 미래문명과 불교를 관련지어 검토하고 그 가능성을 찾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정리=노병철 기자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중생들의 고통을 해소하는

신비한천연수를 소개합니다

민족의 명산 태백산령 형제봉 자락에 위치한 약사도량 정심사의 신비한 천연수를 복용하거나 환부에 바르면, 아토피성 피부염, 위염 및 위궤양, 화상, 염증, 알레르기, 주부습진등의 괴로움이 씻은 듯이 사라집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신령스러운 신비한 천연수를 복용하거나 환부에 바르시면서 치료의 효과를 체험하시고 계십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주소창 또는 검색창에서 한국불교방송 홈페이지로 들어오셔서 신비한 물 안내 편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태백산령 형제봉 정심사

강원도 동해시 만운동 216번지 버스종점

TEL 033)534-3956~7 / H·P 010-3300-0408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59기 佛敎儀式(범음·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아간 및 통산생)	
· 기본과정 (3기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범고) 다루는법, 도량서, 쇄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 중급과정 (3기월)	상주권공, 대령관육,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시식 등
· 작법 반(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경, 다계작법(나비춤) 등

-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 원서접수 : 2006년 4월 10일까지
- ◆ 개강일시 : 2006년 4월 11일 오후 5시
-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영환판 사진 3매
- ※ 본원은 초중과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특도, 포교원(사찰)청진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 초심자라도 어렵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 전화·서신 문의하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팔달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海東佛敎儀式敎育院 海東佛敎梵音大學

세계적인 위빠사나 큰 스승 우 판디따 사야도 초청 명상 수행 안내

판디따라마 서울 위빠사나 명상센터에서는 봉인사의 후원으로 세계적인 위빠사나 수행의 큰 스승이신 판디따라마 웨다공폰 사야도지(우 판디따 사야도)를 모시고 국내에서는 유례가 없는 42일간의 집중 수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집중 수행 기간 동안 교학과 수행이 높은 신 우 따마네조 사야도와 두 분의 세알레이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사야도지와 함께하는 집중 수행은 마하시 방법의 위빠사나 명상 수행이며 위빠사나 수행이란 우리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정신적, 육체적 현상을 일어나는 대로 주의 기울임으로써 그 본성을 있는 그대로 깨달아 마음의 평화를 얻는 수행입니다.

계율이 청정하시며 또한 자애로우신 사야도지를 모시고 수행을 하는 귀한 기회이니 좋은 인연 맺으시기를 바라며, 항상 법 안에서 몸과 마음이 평온하고 행복하시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판디따라마 서울 위빠사나 명상 센터 · 봉인사 합창

1. 수행 기간 : 2006년 4월 15일 - 5월 26일(42일간)
 2. 수 행 처 : 봉인사 (www.bonginsa.net, 031-574-5585)
 3. 접수일과 접수처(문의) : 3월 14일 - 3월 31일 판디따라마 서울 위빠사나 명상센터
- 전화 : 02)2235(2232)-2841 / 이메일 : byunsh1@hanmail.net http://www.panditarama.com

※ 행사기간 동안 자원봉사로써 선업 공덕을 쌓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판디따라마 서울 위빠사나 명상센터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